

빛으로 그리는 보이지 않는 추상의 흔적

글. 이경률 사진비평가

물리-화학의 아날로그 방식이든 빛과 센스의 디지털 방식이든 사진은 그 모든 것이 기계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는 언 듯 보기에 전혀 인간의 중재가 없는 절대 객관적인 행위로 보인다. 그러나 작동자 입장에서 볼 때 전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런 저런 인물과 순간 그리고 장소를 결정하는 사진적 선택은 절대적으로 임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맥에서 “사진적 행위 acte photographique”는 완전히 주관적이다.

그런데 사진적 행위에서 촬영자는 흔히 그의 카메라에 예외적인 것, 예견치 않은 것, 드문 것,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결정적 순간과 같은 결코 재현되지 않을 사건을 포착한다. 그래서 좋은 사진은 사진가가 계속 숨어서 지키는 좋은 만남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응시자와의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보이는 세상 말하자면 번사의 웅변과 같은 “보여주는 사진”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에서 모든 사진이 예외적인 것이나 결정적 순간만을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좋은 사진은 가장 평범하게 시행된 사진 말하자면 닳음의 극단적인 평범에 관계하면서 응시자로 하여금 과거 경험을 가장 편안하게 환기시키는 사진이다. 이럴 경우 대부분의 주제는 대상으로부터 감회된 작동자의 극히 주관적인 인상(impression)에 관계하며,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촬영자의 인상을 은밀히 드러내는 “암시적인 사진”이 된다.

여기 보이는 작가 이경문의 사진들은 바로 이러한 보이지 않는 추상을 지시하는 가장 예시적인 이미지들(photo=index)이다. 그의 사진에서 어둑어둑 해지는 석양과 하나, 둘 켜지는 가로등이 만들어 내는 빛과 어둠의 향연은 더 이상 단순한 상황적인 진술이나 소통을 위한 제스처가 아니라 오히려 대상과의 설명할 수 없는 교감을 지시하는 일종의 무언극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사진을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보여주는 시각적인 이미지 자체가 아니라 그 이미지를 만들게 한 근본적인 원인성으로서 충동(impulsion)인데 이러한 감성적인 충력은 작가가 체험한 경험적인 것들로부터 돌출된다.

어렴풋한 빛과 어둠이 만들어 내는 미묘한 장면에서 작가가 던지는 무언의 메시지는 우리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 일상의 익숙과 진부에 대한 개념적인 의문이다. 이때 작가의 시선은 의심할 바 없이 익숙한 현재의 공간을 넘어 전혀 예견치 않는 혹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경험적인 “이상함”에 있다. 예컨대 당장 익숙하지 않은 이국땅에 가보자. 아무 볼거리 없는 그곳에 그저 우리가 서 있는 곳을 바라볼 뿐인데도 또한 그곳 사람들에게 지극히 평범한 공간일 뿐인데도 우리에게 새롭고 신기하게만 보인다.

결국 이국적인 것은 익숙하지 않았을 뿐이다. 반대로 아주 익숙하고 진부한 장소라 할지라도 어느 날 그것이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놓이거나 상황이 바뀌면 갑자기 예견치 못한 이상함이 드러난다. 작가의 경험적인 진술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작가의 사진 이미지는 친숙함과 이상함의 이중구조를 가진다. 다시 말해 찍혀진 자리에 대하여 내가 알아보는 것(익숙)은 곧 알지 못하는 것(이상함)을 동반하고 역으로 이상한 것은 언제나 진부함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 ! 언제나 보는 진부한 곳이라 할지라도 빛과 어둠이 만드는 특별한 상황에서 그 곳은 알 수 없는 어떤 감성적인 비밀을 누설하고 있다. 특히 석양은 바로 이러한 익숙한 광경을 물리적으로 낯설게 보이게 하는 가장 좋은 예가 된다. 그 점에 관해 작가는 "촬영 장소인 세인트 킬다(St Kilda)는 멜번을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관광지임과 동시에 내가 수 몇 년 동안 생활한 곳으로 개인적으로 무척 친숙한 지역이다. 이 지역의 일상적인 풍경을 특정한 시간대에 바라봄으로서 '익숙함'에 관한 새로운 개념을 도출하고자 했다"라고 자신의 촬영 의도를 분명히 언급한다. 그래서 촬영된 그곳은 우리를 잠시 멍하게 만드는 곳 다시 말해 어떤 이상함, 불안함, 멜랑콜리를 동반하면서 지극히 평범한 장소인 만큼 이상한 자리가 된다.

이와 같이 작가가 독백 형식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의문은 바로 이러한 진부와 이상함의 모호함이다. 사실상 우리 눈에 진부하게 보이는 것은 오늘날 대중 매체의 과도한 정보에 의한 집단사회의 반복과 익숙 그리고 무감각에 그 이유가 있고 반대로 이상함은 언제나 익숙한 상황 이면에 내재되어 있다. 작가의 사진이 과시적인 "보여주는" 이미지가 될 때 우리가 인지하는 것은 장황한 현실의 진술이지만, 은밀한 자신의 경험적인 것을 누설할 때 우리는 익숙과 평범이라는 의미의 영역 밖에서 부유(浮遊)하는 어떤 과도한 의미로서 무의미(non-sens)와 푼크툼(punctum)을 경험한다. 결국 작가가 사진을 통해 누설하는 경험적인 것, 그것은 빛으로 그리는 보이지 않는 추상의 흔적이다.